

Sep
2019

www.kebhana.com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Sep
2019

목 차

금리	03
달러/원 환율	05
엔/원 환율	07
유로/원 환율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09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리

8월 동향 한·일 갈등 확대 속 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우려,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 확대 등으로 하락

초반,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영향 등에 국내 경기부진 우려감 확대

- 국고채 금리는 FOMC 금리인하 결정에도 매파적 결과 인식 속 하단 제한되며 출발한 후, 미·중 무역분쟁 재확산, 한일 수출갈등으로 하락 전환
 - 7월말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본격적 인하 사이클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낮은 수준을 이어가던 국고채 금리는 하단 제한되며 출발
 -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재격화하는 양상 속에 위안화 7위안 돌파 및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지정 제외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중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 중반, 미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글로벌경기 우려를 강화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 소식, 잭슨홀 미팅 관망세 등이 하단 제한
 - 7월 중반, 미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역전(10Y-2Y) 현상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이어지며 국고채 금리 하락 강화
 -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월 후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로 하단이 제한되는 양상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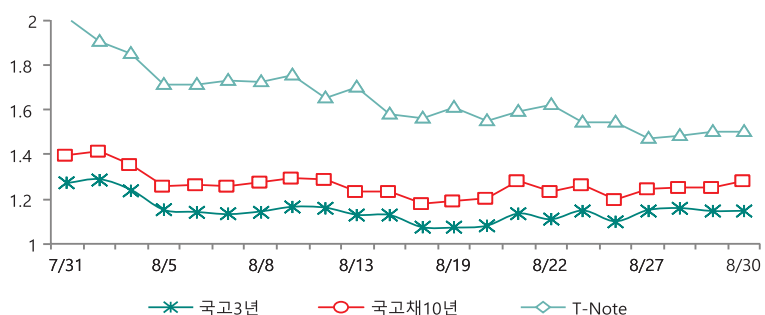
미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현상 빈번해지는 가운데 금통위의 완화적 기조 반영되며 하락 추세 마감

- 8월 후반, 미국채 금리 역전현상 등락에 미국채 금리 급락 영향과 금통위 금리 동결에도 소수의견 개진 확대 등이 주요하게 하락 추세를 견인
 - 8월 후반, 미국채 금리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미국채 금리 급락 시현
 - 이후 한은 총재의 국내경기 부진 반영한 완화적 기조 발언 속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에 따라 하락추세 이어지며 마감

8월 평균

국고채(3년): 1.17%
국고채(10년): 1.26%
T-Note(10년): 1.65%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9월
전망

국내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상존과 동북아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하고 있는 점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며 소폭 금리 하락 추세 이어질 전망

평균	2019. 1Q	2019. 2Q	2019. 3Q ^F	2019. 4Q ^F
국고채(3년, %)	1.80	1.64	1.10	1.00

- 국내 수출 부진 속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록 등이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일본과의 수출 갈등 등 불확실성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및 물가 지표 악화

- 최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한일 수출갈등이 이어지며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점이 국내 경제체질 개선에 지속적 부담이 될 전망
-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기록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

- 미·중 무역갈등이 추가관세 부과 속 요원한 분쟁으로의 본격 돌입으로 판단되며, 빈번한 미국채 금리 장단기스프레드 역전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하락을 견인할 전망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 증대는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에 핵심요인

- 미·중 무역갈등이 9월 관세 부과 후, 추가 협상 여지가 남아있긴 하나 현재까지 진행 과정 상 타협의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우려로 미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 등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시킬 전망

- 대내외 금융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 속에 우리나라 주변 외교안보 이슈 부각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전월 금통위의 완화적 스탠스도 금리 하락 요인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1.05%~1.25% 예상

- 글로벌 경제 이슈와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더해 우리나라 주변의 외교안보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측면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견인할 전망
- 다만, 최근 낮아진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단기적 차익 실현 가능성이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다소 매파적 성향을 띤 책سن을 연설에서의 연준 스탠스 · 낮아진 금리 레벨 부담 속 단기금리 중심의 차익 실현 니즈	·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 한일 수출갈등 지속하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지정학적 외교안보 이슈 부각 ·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달러/원 환율

8월 동향 한일 긴장 확대 국면 속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의 환율갈등 전이영향, 미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등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감 증폭되며 1,200원대 안착하는 양상

월 초, 일본과의 수출 갈등 속 미·중 무역분쟁 재확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월 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지정 제외 이슈 부각 속에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 7위안 돌파 등으로 상승 출발

- 7월 초, 달러/원 환율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지정 이슈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증대 등으로 상승 출발
-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재격화 하는 가운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상승세 지속

중반, 홍콩 사태 발발과 미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가 위험회피를 강화했으나,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소식 등으로 상승 제한

■ 중반, 홍콩 사태 발발에 따른 영향의 외환시장 전이 우려 및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 등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속 등락

- 7월 중반, 홍콩 사태 발발하며 악화일로를 보였음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 소식 등 미·중 무역분쟁 양상 등락 등으로 1,210원대 중반 등락
- 이후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이슈가 글로벌 경기 우려를 확대했으나, 이내 안정세 보인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유예 소식 등이 상승 제한

월 후반, 9월 미·중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등 하락 요인과 위안화 약세 및 한일 갈등 확대 등 상승 요인 혼재 속 1200원대 전후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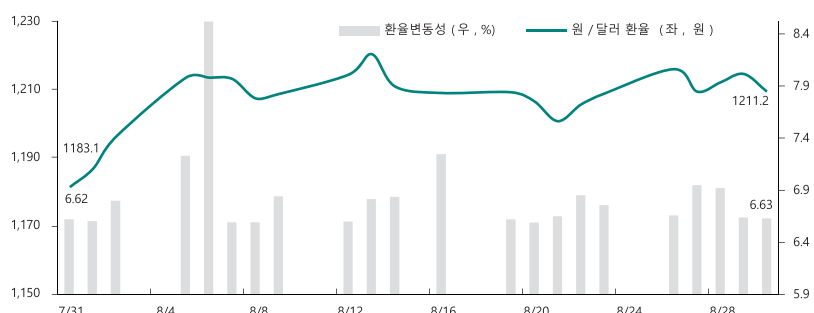
■ 8월 후반, 미국채 금리 변동성 완화 속 9월 미·중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등에도 위안화 약세에 연동된 가운데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및 한일 갈등 확대 등 등락요인 상존으로 상하단 제한되며 1,210원대 초반 마감

- 7월 후반, 미국채 금리 변동성 완화 속 9월 미·중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위험 선호에도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강보합 흐름
- 이후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지소미아 종료로 상승력 확대되었으나, 외환당국의 경계감 확대에 환율은 전월보다 28.1원 상승한 1,211.2원으로 마감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210.7원

8월말 달러/원 환율
: 1,211.2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9월
전망핵심은 여전히 미·중 무역갈등 방향성인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외교안보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19. 1Q	2019. 2Q	2019. 3Q ^F	2019. 4Q ^F
달러/원 환율(원)	1,125.7	1,167	1,200	1,230

- 미·중간 추가 관세 부과 발효 속 팽창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우려는 9월 중에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9/1일 미·중간 상호 추가관세 부과 발효에 따른 무역갈등의 상호 보복전 양상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점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멕시코, 일본, EU 등으로 확산됨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점증도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미·중 무역갈등이 상호 보복전 양상 전개 속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전월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의 비둘기적 성향 완화가 대외불확실성 영향을 언급한 점과 상호상충하고 있는 상황 등이 달러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에 대한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실적 약화 등 우려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소 비둘기적 성향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달러 약세요인
- 그러나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며 통화정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의 완화적 기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달러 강세를 견인할 전망

전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기조가 상대적으로 덜 완화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대내적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수출갈등 지속과 우리나라 중심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측면이 여전히 달러 대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국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지표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여기에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미국의 한국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 우려, 홍콩시위 확산 등 국내외 주변 지정학적 외교·안보 리스크 확대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9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200원 ~1,245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미·중 추가관세 발효 속 무역갈등 심화 · 한·일 갈등 속 동북아 중심 외교·안보 이슈 부각 가능성 ·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 연내 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점증	· 1,200원대 이상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에 따른 외환당국 경계감 지속

엔/원 환율

8월
동향

달러/엔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부각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104엔까지 하락.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 강세와 한일 갈등 속 원화 약세 영향으로 1,160원까지 상승 후 높은 수준 유지

엔/원 환율 전월대비
26.1원 상승한 1,138.8
원에 마감

-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하강리스크 등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된 가운데 한일 긴장에 따른 원화 약세 심화 영향으로 원/엔 환율 높은 수준 유지
 - 월 초, 미국의 중국산 수입제품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위안화 약세 용인,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엔화 강세 강화. 일본의 한국 백색리스트 제외 결정이 원화 약세 견인하며 엔/원 환율 큰 폭 상승
 - 월 중반,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연기 소식에 환율 소폭 하락
 - 월 후반, 시장 기대보다 덜 도비시했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환율 재차 상승 후 다소 진정되며 마감

9월
전망

달러/엔 환율은 미중 갈등, 노딜 브렉시트, 홍콩 시위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으로 하락세 이어갈 예상. 엔/원 환율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상승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승 제한 전망

달러/엔 하락 예상

- 안전자산 선호 지속에 따른 달러/엔 하락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 노딜 브렉시트, 홍콩 시위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가 달러/엔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다만, 10월 일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BOJ 통화 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달러/엔 환율 하락이 제한될 전망
 - 9월 FOMC(9/17~18일)의 금리인하 여부도 환율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엔/원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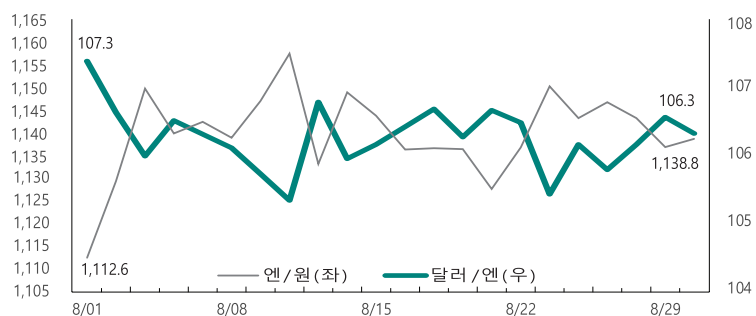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라 엔/원 환율 상승 전망
 - 미국, 유로존 등 불안한 글로벌 경기와 한일 관계 악화, 그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외교·안보 이슈 등이 엔/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 안전자산 선호 약화되며 환율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BOJ 통화완화 가능성도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6.2엔

8월 엔/원 평균환율
: 1,139.9원

9월 엔/원 예상 범위
: 1,130~1,17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8월 동향

유로/달러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갈등 완화 후 유로존 내부 리스크 요인에 주목하며 하락. 유로/원은 원화약세 심화로 큰 폭 상승 후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하락전환

- 유로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며 유로/원 환율 상승하였으나 이후 미중 긴장 완화와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 월 초, 미중 무역분쟁 속 유로화 강세와 한일 갈등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1,360원대까지 상승
 - 월 중반, 미중 갈등 완화와 ECB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유로화 약세 전환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 하락
 - 월 후반, 미중 무역긴장 재점화되며 유로/원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환율 하락전환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23.9원 상승한 1,336.7원에 마감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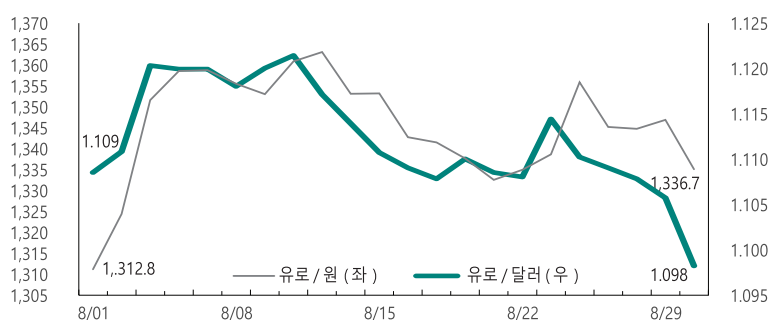
ECB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감에 유로/달러 하락 전망. 유로/원은 원화 약세 지속 전망 되나 다수의 유로화 약세요인으로 하방압력 우위 전망

- 유로존 경기 불안에 대응한 ECB 완화정책이 유로/달러 하락 견인 전망
 -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확대에 따른 ECB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이 유로 약세를 견인할 전망. 9월 ECB 통화정책회의(9/12)에서는 예금금리 인하, 자산매입 등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 10월 말 브렉시트 기한을 앞둔 경제감 속 존슨 영국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시사 발언도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다만, 9월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유로/달러 하락을 제한할 전망
- 원화 약세 지속되나 유로존 불확실성으로 유로/원 제한적 하락 전망
 - 독일경기 침체 우려 및 ECB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 노딜 브렉시트 등 유로화 약세요인들이 다수 상존하여 유로/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 하락은 제한될 전망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 예상

유로/원 환율 제한적 하락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122달러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7.0원

9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10원~1,35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6월	7월	8월
전 산업 생산	1.4	-0.6 [-0.8]	0.4 [0.6]	-0.8 [-0.6]	0.5 [1.2]	
제조업	1.2	-2.1 [-3.0]	-0.7 [1.6]	-2.7 [0.2]	0.8 [2.6]	
서비스업 생산	2.1	1.1 [0.3]	1.4 [0.0]	0.1 [-1.1]	1.3 [1.0]	
소매판매액	4.3	1.7	2.0	1.2	0.3	
설비투자	-3.5	-19.6	-8.7	-9.0	-4.7	
건건설기성액	-5.3	-9.5	-6.5	-4.4	-6.2	
경기선행지수	-	-	-	97.9	97.6	
실업률 (%)		3.4	3.4	4.0	3.9	
소비자물가 상승률		-	-	0.7 [0.2]	0.6 [-0.3]	0.0 [0.2]
경상수지 (억달러)	-	-	-	63,766		
상품수지 (억달러)	-	-	-	62,697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13.7	-11.0	-13.6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0.9	-2.7	-4.2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1,676	1,379	1,162
KOSPI (월말)	-			2,041.7	2,024.6	1,967.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9.3	2019.4	2019.5	2019.6	2019.7	2019.8
미국 USD	1,135.2	1,168.1	1,190.9	1,154.7	1,183.1	1,211.3
일본 JPY(100)	1,026.1	1,046.1	1,099.5	1,071.9	1,090.3	1,138.8
유로 EUR	1,276.2	1,304.2	1,325.5	1,312.9	1,318.6	1,336.7
영국 GBP	1,482.6	1,517.1	1,501.9	1,467.8	1,444.7	1,471.5
중국 CNH	168.7	173.1	171.6	168.2	171.6	168.9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9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8월 무역수지(\$2,441m) -수출/수입(-11%/-2.7%, YoY)	2 일 8월 닷케이 PMI 제조업(49.5)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49.9) 유 8월 Markit 제조업PMI(F)(47) 독 8월 Markit 제조업PMI(F)(43.6)	3 豪 RBA 한 8월 CPI(-0.3% MoM/0.6% YoY) 호 RBA 기준금리(1.0%) 유 7월 유로존 PPI (-0.6% MoM, 0.7% YoY) 미 8월 Markit 제조업PMI(49.9) 8월 ISM 제조업지수(51.2) 7월 건설지출(-1.3% MoM) Fed's Rosengren Speaks in Easton, Massachusetts	4 한 8월 외환보유고(\$403,11b) 일 8월 닷케이 PM중합/서비스(51.7/53.4) 중 8월 Caixin 서비스PMI(51.6) 8월 Caixin 중합PMI(50.9) 유 7월 소매판매(1.1% MoM, 2.6% YoY) 8월 Markit 서비스중합PMI(F)(53.4/51.8) 독 8월 Markit 서비스중합PMI(F)(54.4/51.4) 미 7월 무역수지(-\$55.2b)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Fed's Williams Speaks in New York Fed's Kashkari Speaks in Townhall Event in Minneapolis	5 독 7월 공장수주(2.50%, MoM) 미 8월 Markit 서비스/중합 PMI(50.9/50.9) 7월 제조업수주(0.6%) 7월 내구재 주문(2.1%)	6 일 7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P)(93.3/100.4) 유 2Q GDP 미 8월 실업률(3.7%)	7 중 8월 외환보유고(\$3,103,70b)
8 중 8월 무역수지(\$45,06b) -수출/수입(3.3%/-5.6% YoY)	9 일 2Q GDP 연간화(1.8% QoQ) 미 7월 소비자신용지수(\$14,596b)	10 일 8월 공작기계 수주[P] (-33.0% YoY) 중 8월 CPI/PP(2.8%/-0.3%, YoY)	11 한 8월 실업률(4%) 일 8월 PPI(0.2% MoM/1.7% YoY) 7월 도매재고(MoM)	12 ECB 통화정책회의 일 8월 PPI(-0.6% YoY/0.0% MoM) 7월 3차산업지수(-0.1% MoM) 7월 핵심기계수주(13.9% MoM) 유 ECB 기준금리(0.00%) 유 7월 산업생산(-1.6% MoM, -2.6% YoY) 독 8월 CPI(F) 미 8월 CPI(0.3% MoM/1.8% YoY)	13 일 7월 광공업생산 유 7월 무역수지(20.6b) 미 8월 수출/수입물가 (0.2%/0.2%, MoM) 7월 기업재고(0.00%)	14
15	16 중 8월 광공업생산(4.8% YoY) 8월 소매판매(7.6% YoY)	17 美 FOMC(~18) 미 8월 광공업생산(-0.2%, MoM) 8월 설비가동률(77.5%) 제 74차 UN총회	18 BOI 통화정책회의(~19) 한 8월 수출물가지수 (-0.2% MoM, -5.3% YoY) 수입물가지수(0.6% MoM, -1.3 YoY) 일 8월 수출/수입(-1.6%/-1.2%, YoY) 8월 무역수지(-¥249.6b) 유 8월 CPI(-0.5% MoM/1.0% YoY) 7월 건설생산(0% MoM, 1% YoY) 미 FED 기준금리(2.00~2.25%) 미 8월 주택착공건수(-4% MoM) 8월 건축허가(8.4% MoM)	19 BOE 통화정책회의 일 BOJ 기준금리(-0.10%) 영 BOE 기준금리(0.75%) 미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6.8) 8월 기준 주택매매(2.5% MoM)	20 일 8월 CPI(0.5%, YoY) 유 9월 소비자기대지수 독 8월 PPI(0.1% MoM, 1.1% YoY)	21
22	23 일 9월 닷케이 PMI제조업[P] 유 9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중합PMI[F] 독 9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중합PMI[F] 미 9월 Markit 중합, 제조업, 서비스PMI[F] Bullard Discusses U.S. Economy and Monetary Policy	24 한 8월 PPI (-0.3% YoY) 독 9월 IFO 기업환경지수(94.3) 미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135.1)	25 독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9.7) 미 8월 신규주택매매 (-12.8%, MoM)	26 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92.5) 미 2Q GDP 연간화(QoQ) 2Q 개인소비 2Q GDP 물가지수 Bullard Gives Welcom- ing Remarks at Minori- ties Banking Forum Fed's Kashkari Speaks in Townhall Event in Billings, Montana	27 중 8월 산업생산(2.6% YoY) 유 9월 경기기대지수 Fed's Harker Speaks to Shadow Open Market Committee	28
29	30 일 8월 소매판매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